

# 朝鮮, THE MORNING CALM

12호

1891년 6월

## □ 서지사항

- 제목 : 〈朝鮮, THE MORNING CALM〉 12호
- 발행인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
- 발행지 : 영국 런던
- 발행일 : 1891년 6월
- 페이지수 : 20(표지 포함)

## □ 목차

Cover	(i)
The Mission	ii
Hospital Naval Fund	ii
June (6월의 기도표)	iv
St. Peter's Community Foreign Mission Association	iv
The Bishop's Letter (주교통신. 1891년 3월 17일 코프 주교가 제물포에서 보낸 서신)	(61)
Note (알림)	63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64
Education Fund	65
The Royal Naval Exhibition and the Corean Mission	65
The Spirit of Missions	70
Missionary Intercessions and Thanksgivings	v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vi
Sketch map of COREA & adjacent Countries (지도)	viii

## □ 해제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가 런던에서 펴낸 잡지 〈모닝칼〉 12호

이번 호부터는 우리나라를 Corea로 고쳐 적었다. 표지에서부터 각종 협회나 기금 이름에서도 모두 'Korea'가 'Corea'로 바뀌었다. 코프 주교(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한국명 고요한)의 서신이 실렸다. 주교는 이 '주교통신'의 펜을 놓자마자, 트롤로프 사제와 포널 부제와 신학생 데이비스 등이 도착한 것을 보고서, 다시 펜을 들어 그들의 도착 소식을 추신하였다. 그리고 워너 부제의 편지에서도 몇 줄 뽑아 실었다. 또한 지난달에 예고한 해군 전시회의 한국 전 소식을 실었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The Bishop's Letter - 주교통신

제물포에서, 1891년 3월 17일  
벗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요새 증기선들 왕래가 불규칙한 탓도 있고, 딱히 전할 소식이 없기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음력설은 2월 9일이었는데, 설 전이나 후로 며칠은 모든 일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랜디스 선생의 환자들 방문도 일시 멈춤 상태가 되어, 그에게 짧은 휴식이 주어졌고 이를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지금은 또 전에 없이 바빠져서 손을 놓고 설 겨를이 없습니다. 랜디스 진료실은 오전 내내 사람들이 짝 차며, 오후에는 3마일(4.8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걸어가서는, 제물포 진료실까지 오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돌봅니다.

여기다 랜디스는 짐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 매일 저녁 일본인들에게 3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성인들 30~40명이며 여기에 중국인도 6~8명이 들어왔습니다. (……)

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2개월을 여기서 보내며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공략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척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타고나기를 이 방면으로는 매우 느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스몰 사제는 워너 부제, 피크 씨와 함께 서울에서 작은 '장림(將臨) 선교 하우스'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이들도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날 때쯤에는 낙동의 큰 선교 하우스에 들어가 정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스몰 사제와 워너 부제가 지난주에 그곳 거처로 들어갔다고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트롤로프 사제와 그 일행이 도착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 (주석 : 장림 선교 하우스는 지금의 정동 서울주교좌성당 자리, 낙동은 지금의 소공동 근처)

제 다음 서신은 뉴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요한 성주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진실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선교 하우스의 개통이 야말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집은 제가 지난해 7월에 사놓은 것인데, 한두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입주할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우리가 모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큼직합니다. 여러분도 한꺼번에 오시지만 않는다면 환영입니다.

의사 와일스(Wiles) 선생은 장림 선교 하우스에 첫 진료실을 열었고 낙동의 선교 하우스 구내에 두 번째 진료실을 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의 손이 어느 때보다 일로 가득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의사 두 사람 다 한결같이 참을성 있고 곳곳이 인내하는 모범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기원하는 진실한 기도를 바치며,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다정한 벗입니다.

✧ C. J. 코프.

추신 - 3월 19일. 오늘 아침 트롤로프 사제, 포널 부제, 서품 후보자 데이비스 씨(Mr. Davies), 와이어스 씨(Mr. Wyers)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악천후로 24시간이나 발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모두 심신이 건강합니다.

이어서 워너 부제(L. O. Warner) 편지에서 약간 발췌해 실었다. 2월 10일에 쓴 편지에서는 제물포의 영어 교실에 관해 쓰고 나서 날이 너무 추워서 사나흘 휴강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등 한국의 겨울 날씨를 생생히 전하고 있다. 2월 15일에 쓴 편지는 산책하러 나갔다가 산신당 같은 데를 가본 것을 자세히 적어 보냈다.

####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 조선을 위한 기도와 사목 협회

128개의 지부가 세워졌고, 회원이 1,441명이라고 적고 있다.

#### The Royal Naval Exhibition and the Corean Mission - 해군 병원 기금

코프 주교와 해군 그리고 해군 병원 기금의 긴밀한 관계 덕에 이번 해군 전시회에 '코프 주교의 조선선교회'를 알리는 공간이 할당되었다. 하우 갤러리 4045(Howe Gallery, No. 4045)에서 공식 카탈로그를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6쪽이나 되는 긴 글로, 거의 지면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다. 전시 공간이 자료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니, 전시하고픈 것이 매우 많았다는 뜻이다.

- 조선에서 볼 수 있는 성경 3종류(한중일 3종으로, 1882년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가 번역한 최초의 한국어 신약성경과 중국어 문리역 신약성경과 일본어 성경)
- 코프 주교 사진과 해군 군종 시절의 기도서, 주교가 입었던 제의 등
- 사진 자료 : 조선선교회 소속 선교사 와일스 선생, 스몰 사제, 장림 선교 하우스에서 찍은 선교사들 단체 사진
- 조선과 서울 관련 책자 등 인쇄물과 지도
- '주교통신'과 선교 잡지 <모닝캄> 및 선교 지원 단체들의 리플렛, 카드 등
- 조선 물품 : 규방 용품, 담배 용품, 도미노게임 도구와 돈, 갓, 문방사우 등
- 조선사람들 모습과 중국 주둔 영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케치들
- 영국 해군 장교가 찍은 거문도와 주민들 사진 26장

## The Mission - 조선선교회 명단

캘리 사제 옆에 새로운 주소가 추가되었다.

BISHOP.

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D.D., All Souls College, Oxford; Hon. Chaplain to H. R. H. The Duke of Edinburgh.

PRIESTS.

The Rev. M. N. TROLLOPE, M.A., New College, Oxford (Bishop's Chaplain and Senior Priest of the Mission). St. Martin's, Beckenham, Kent.

The Rev. H. H. KELLY, M.A., Queen's College, Oxford, and 99 Vassall Road, S. W.

The Rev. R. SMALL, M.A., Corpus Christi College, Cambridge.

DEACONS.

The Rev. LEONARD O. WARNER, St. Augustine's College, Canterbury.

The Rev. J. H. POWNALL, Dorchester College, Oxford.

CANDIDATES FOR HOLY ORDERS.

SIDNEY J. PEAKE.

MAURICE W. DAVIES, St. Boniface College, Warminster.

-----  
Deputy Surgeon-General J. WILES (on the Retired List), in charge of the Hospital Naval Fund.

E. B. LANDIS, M.D.

## 그래픽 자료 - 지도

맨 뒤 표지에, 1호에 실린 한국 지도가 실려 있다. Port Hamilton이 영국인이 거문도를 부르는 이름이다. 원산은 Gen San으로 부른다. 자세한 설명은 1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 아침생각

〈모닝캄〉이 12호를 맞이했다. 트롤로프 사제와 데이비스 부제,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인 와이어 스 씨가 도착했다. 인적 구성이나 공간 등 여러 면에서 조선선교회는 잘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영국에서는 한국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5월, 하우스 갤러리에서 해군 전시회 때 한국관이 마련되어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리고 코프 주교의 선교회 소식을 알리는 전시회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었다. 당시에 도 조선 선비의 정장을 완성하는 의관 특히 '갓'에 관심이 많았던 듯하다. 2021년 영국 주재 한국 대사도 갓을 쓰고 여왕을 알현하였다. 〈모닝 캄〉에서 우리 역사와 전통의 우물을 발견하게 된다. (✽)